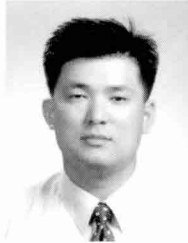


닭고기 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육계사육 연료비 대안은 없는가?

국제유가가 최근 145달러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이용률도 낮은 탓에 유가급등에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석유류 재고 증가로 유가가 다소 하락은 했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로 향후 유가 흐름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7년 초 58달러에서 2008년 7월 145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우리 양계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효과를 과시하고 있다.



최용순 팀장
(주)마니커 사육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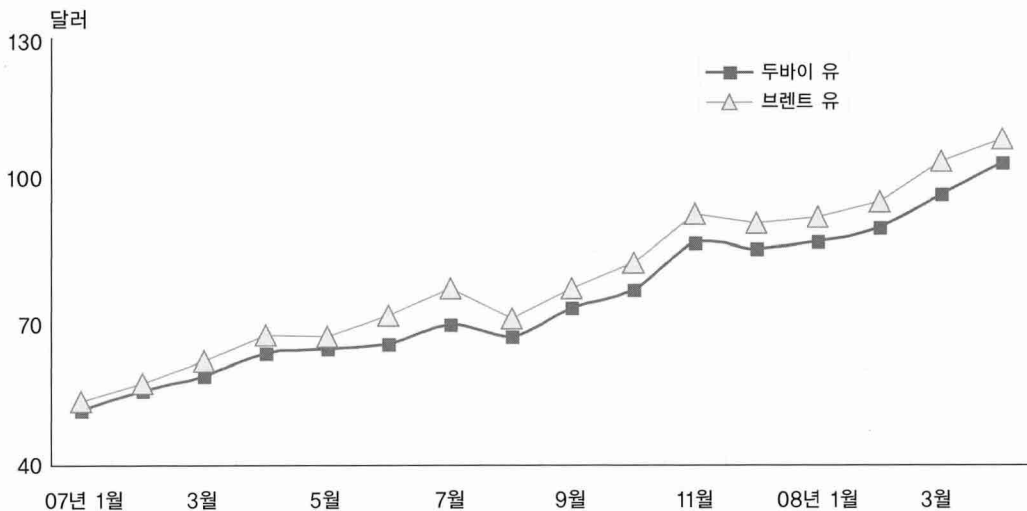
옥수수, 대두박 등이 바이오 연료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인상은 곡물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양계농가에게는 사료비 및 연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생계사육의 원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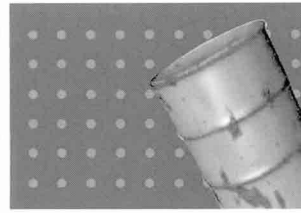
1. 최근 유가 동향

최근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급등은 기본적인 수급상황 이외에도 투자자금 및 중동의 지정학적인 요인들로 인해

월별 주요 원유 가격 추이(대한석유협회 통계기준)





유가를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환율문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 인도 등의 고도성장 지속 국가들과 중동 산유국의 불안으로 인해 유가의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 당분간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가인상으로 인한 양계산업의 문제점

1) 환기관리 문제

환기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사내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닭들이 체온유지와 생산활동(증체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유 가격의 급상승은 환기관리를 적절히 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적절한 환기를 위해서는 사용한 양의 면세유 만큼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유가인상의 속도는 사육가의 소득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호흡기 질병 발생

유류비 부담으로 적절한 환기에 실패했을

경우 호흡기 질병이 발병할 수 있으며, 사료효율 저하로 인한 사육성적 저하가 사양가 소득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특히 계사시설이 노후된 사양가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낮아 더 많은 연료비가 소요돼 적절한 대응이 따라주지 못하면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동절기 입추 어려움

동절기에는 입추준비의 어려움, 사육성적 저조로 소득감소 및 연료비 부담으로 동절기 사육 여부를 고민하는 사양가가 동절기 입추를 꺼리는 경향도 있으나 금년의 경우 이런 사양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단열지수가 낮은 사양가의 경우 연료비 비용이 전체소득의 60~70%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면세유 가격이 배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동절기 입추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4) 계열화 업체 및 사양가의 수익성 악화

생계 사육원가에서 가장 큰 비용 요인은 사료비이나 동절기 연료비 인상은 계열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특히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은 사양가와 계열화

닭고기 산업, 이대로는 안된다

육계사육 연료비 대안은 없는가?

업체의 생계사육 원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시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므로 계열화 업체가 동절기 입추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3. 대응방안

1) 단기 대책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계사내 단열 지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동절기 유류비는 사양가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쉽고 비용이 덜 소요되는 방안으로 동절기 단열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우레탄 사용을 통한 냉기 차단 및 단열 보완 작업 시행, 이중원치 설치, 보온덮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계사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설 보완 작업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료비 인상분 대비 인상폭이 적은 에너지원인 전기 및 가스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면세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특히 환기의 적정 음압 유지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계사내 암모니아 가스 제거

를 위한 첨가제나 화학제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양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2) 중장기 대책 :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중장기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정부에 건의하여 산·학·연을 통한 연구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예를 들어 계분 활용을 위해 여름에는 계분을 압축하여 비닐팩에 보관을 하고 동절기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분 보일러 개발 및 계사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에너지화하는 작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만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극복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